

헝가리(Hungarian Republic)

2005. 6.

I. 경 제 동 향	1
II. 정 치 · 사 회 동 향	9
III. 국 제 사 회 의 평 가	12
IV. 우 리 나 라 와 의 관 계	13

해외경제연구소 국별조사실

헝가리 국별리포트

<주요지표>

면적 : 9.3만km ²	화폐단위 : Forint (Ft)
인구(2004) : 10.03백만 명	환율(2004) : U\$1 = Ft202.75(연평균)
G D P(2004) : 997억 달러	회계연도: 1. 1 ~ 12. 31
1인당 GDP(2004) : 9,941달러	정치체제: 내각책임제

<일반개황>

- 1980년대 후반부터 체제전환을 시작하였고, EU, OECD, 여타 국제기구들로부터 선도적인 체제전환국으로 평가받고 있음. OECD(1996), NATO(1999) 가입에 이어 2004년 5월 1일에는 EU에 가입함.
- 동국은 안정된 정치 및 경제 환경을 바탕으로 사회불안 요인은 별로 없으며, 양호한 국제 신인도를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거시경제 환경 변화 및 개선속도가 주변 경쟁국인 체코, 폴란드 및 슬로바키아에 비해 더딘 편으로 분석됨.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의 과다한 적자수준이 주요 경제현안이자 경제의 당면 해결과제임.
- 2004년 초에 활발하였던 경제활동이 동년 하반기 이후 부진하였으나, 2005년 중반 이후의 경제성장은 주요 수출시장인 유럽 국가들의 경기 에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됨. 2010년 유로貨 도입을 위하여 경제정책 및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문제가 경제 활력을 저해하고 있음.

I. 경제동향

□ 국내경제

(단위: %)

구 분	2001	2002	2003	2004e	2005f
경제성장률	3.8	3.3	3.2	4.2	3.4
재정수지/GDP	-3.0	-9.4	-5.7	-5.4	-5.2
소비자물가상승률	9.2	5.3	4.6	6.8	4.0

자료: EIU Country Report, June 2005.

<경제성장>

- 2004년 농업부문의 생산증가율은 36%에 달하였으나, 하반기 이후 그 성장세가 하향추세를 보였으며 2004년 전체적으로는 4.2%의 성장률을 기록함. 그러나 농업부문을 제외하면 2004년 경제성장률은 3%대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됨.
- 2001년 이후 3~4%의 비교적 낮지만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여 왔으며, 지난해의 성장은 투자와 수출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평가됨. 2005년에는 주요 수출시장인 EU 국가들의 저성장이 예견되고 내수 위축 지속, 산업생산 및 투자 위축이 예상됨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다시 3% 대에 머무를 전망이다.
- 투자·수출 증가율 하락, 소비 위축 지속 및 산업생산 및 수출의 기대 이하의 성장, 2006년 이전에는 내수회복 기대 어렵고 지난해 겨울 및 금년 봄 동부지역의 홍수피해로 농작물 작황 부진도 예상됨.
- 2004년 농업작황 호전에도 불구하고 농작물 저장시설 부족, 항구로의 높은 수송비용으로 전반적인 인프라가 원활치 않은 상태

- 2004년에는 고용감소로 임금상승률이 둔화되었으며, 2005년에는 고용 증가가 다소 기대되나, 노동의 초과공급으로 실업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소비자물가>

- 소비자물가는 2002년 이후 비교적 안정화되고 있고 2004년 중반 이후 그 상승추세가 다시 둔화되고 있는데, 그 주된 사유는 농작물 수확 증대로 식품가격이 안정된 데 따른 것임.
- 2004년 하반기 물가상승률 급락 (통화 강세, 수출시장의 가격경쟁 격화, 임금상승률 둔화 등)에 의해 disinflation 지속
 - o 비무역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상승률은 더욱 완만하게 하락
- 2005년 1~4월 3.7%로 예상보다 낮은 상승률 수준
 - o 정부의 전기·가스 요금 상승 억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수입비용 증가로 국내 산업생산자 물가 10%(2005.3) 상승 (통화 약세, 고유가 영향으로 인플레이 압력이 증대되고 있는 점이 우려됨)
- 소비자물가의 수입가격 탄력성은 0.4로 국제 고유가의 인플레이 압력은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됨.

<재정수지>

- 2004년에는 재정지출 억제 및 연금개혁 관련 비용지출로 재정수지/GDP가 전년의 5.7% 적자에서 5.4% 적자로 그 적자폭이 다소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GDP 대비 5%를 상회하고 있어 Maastricht Criteria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이 따름.

- 2005년 1-5월 중 공공부문 적자는 8,380억 포린트로 이미 연간 적자 목표치의 82% 도달(정부 target: GDP 대비 4.7%)
 - o 지출측면 요인: 외채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임금 지급 증가, 농업보조금 지출증대 및 도로개발비용 지출 등 (관료의 비대화: 정부기관 종사자 80만 명으로 이는 총인구의 8%, 노동력의 20%를 차지함)
 - o 수입측면 요인: 성장 부진 및 기대 이하의 인플레이로 VAT Ft 610억 인하계획(2005)

- 정부는 금년 5월 초 Gyurcsamy 총리 주도하의 "Programme of 100 steps"을 통해 재정부문 개혁프로그램 추진계획 발표
 - o 보건 분야(21개 사항)에 대한 구체적 제안; 연금·보건기금의 문제(무임승차자 등)로 부담이 된 시스템 변혁작업으로 대중 의식적 조치로 해석됨.
 - o 최저임금 근로자를 포함한 지하경제의 근본적인 문제해결 노력 (사회보장제의 적절한 지급문제, 표준화된 기본 서비스 패키지 포함)

- 2005년의 산업생산증가율 둔화는 재정수입 위축으로 이어져 재정수지 적자 확대 예상(2005): 주요 개혁에 대한 정치적 의지 부족으로 정부지출 증대 예상(2005-6)
 - o 2006년 5월의 총선과 관련한 정부지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재정적자 목표치인 -4.7%(GDP 대비)를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o 공적채무가 GDP 대비 60% 근접하여 선거압력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공식 목표치 상회 전망 (확대 재정정책 시행의 한계)
 - o 친인척 등 주변 관계 인물의 등용과 과도한 행정관료 비대화로 경제개혁의 한계가 노정되어 있어 기업영업 환경의 질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최근의 투자환경평가는 다소 악화되는 추세임.

<통화정책>

- 중앙은행의 정책기준금리 인하: 2005년 6월 20일 기준 7%
- o 2004년 350bp 인하, 2005년 1~6월 250bp 인하에도 명목 이자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형성 (2003년 말 12.5%)
- 포린트(Forint)화의 국제금융 상품간의 금리스프레드가 축소될 때, 포린트화의 급격한 매각 및 약세가 우려됨.
- o 포린트화의 약세가 2005~6년 물가상승 초래 위협 잠재
- 대규모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로 중앙은행의 확대 통화정책(금리 인하는 물가상승 효과 우려)이 실질적으로 위축되는 효과 발생, 즉 중앙은행은 물가상승 억제 및 포린트화 약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자율지지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음
- o 2004년에는 고금리에 따른 투자자 유인으로 포린트화 가치는 유로화 대비 7% 강세를 보였으며, 2005년에는 국제금리 상승추세로 단기적인 포린트화의 가치하락 우려로 추가적인 금리인하 가능성 희박

□ 산업구조

-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이 진행되면서 제조업 비중이 1988년 GDP의 42%에서 2004년 31%로 낮아졌으나, 서유럽 기업들의 부품 및 조립 생산기지 역할에 특화하는 산업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서비스 산업도 성장을 지속하여 2004년에는 GDP의 65%, 총고용의 60%를 차지하여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 수행
- 산업생산 비중(2004): 서비스업(65%), 제조업(31%), 농수산업(4%)

□ 대외거래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1	2002	2003	2004e	2005f
경 상 수 지	-3,236	-4,736	-7,455	-8,820	-9,100
경상수지/GDP	-6.2	-7.3	-9.0	-8.4	-8.0
상 품 수 지	-2,237	-2,119	-3,279	-2,922	-3,100
수 출	31,081	34,792	43,475	55,368	65,600
수 입	33,318	36,911	46,753	58,290	68,700
외 환 보 유 액	10,302	9,721	12,015	15,312	..
총 외 채 잔 액	30,305	34,958	45,785	59,637	69,300
총외채잔액/GDP	58.5	53.9	55.4	57.2	66.1
D. S. R.	13.1	13.5	13.1	16.3	15.8

자 료: EIU Country Report, June 2005.

<수출구조>

- 주요 수출품목: 기계류(통신설비, 휴대폰) 및 수송장비(자동차)

● 주요 교역 대상국(2004):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무역동향>

- 2004년도에는 주요 수출시장의 경기부진 및 포린트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유럽시장에 대한 휴대폰 및 자동차 관련제품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년과 마찬가지로 20% 대의 수출 증가율을 유지함으로써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

- 2005년 수출실적은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나, EU 시장(유로존)의 수입 유인 약세로 수출성장 잠재력에 한계점 노출

<경상수지>

- 2004년도에는 상품수지 적자폭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기업에 대한 이윤송금 및 배당지급, 정부의 해외차입에 따른 이자지급 증대로 소득수지 적자가 악화되면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8% 대를 상회하고 있음.
- 경상수지 적자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저축-투자의 불균형 지속 반영)으로 정부의 해외차입 유발하였고 2005~6년에도 지속 예상
 - o 자본유입의 50% 이상은 사실상 정부의 재정적자 보전용이며, 국내저축의 감소도 또한 경상수지 적자 확대의 주요 요인
 - o 소득수지: 2004년 외국인주주에 대한 높아진 배당지급, 이윤송금, 공공부문 적자로 인한 정부의 해외차입으로 지속적으로 높은 채무상환 구조 (2005년 5.5% 적자 예상)
 - o 서비스수지: 관광산업 성장으로 소폭 흑자 예상
- 2005~6년 경상수지 적자 축소(8.2% 수준)가 다소 예상되는데, EU의 지역개발기금 수혜로 해외차입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진단
 - o 정부가 포린트화 환율을 유로화 대비 255-260 수준으로 약세를 허용하는 정책을 취하지 않는 한 경상수지 적자는 지속가능 (통화 약세는 국내 내수 경기 진작 가능, 수입증가 억제 효과 유발)

<외국인투자>

- 내수경기 부진으로 2002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였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이 2004년 들어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었음. 이는 실물경기 호전과 더불어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인책(Smart Hungary Plan)이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헝가리중앙은행(NBH)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04년 FDI 유입실적은 전년 대비 15억 유로 증가, 33.6억 유로(2001년 이후 최고치)에 달함
 - o 신규투자 보다는 재투자가 지속되었는데, 기존 EU 회원국의 유로화 가치 상승에 따른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생산기지 이전 및 제조공장 증설 등에 힘입어 지분투자, 재투자 및 기업간 용자 등의 방식으로 투자 이뤄짐.
 - o 정부의 순해외차입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FDI 유입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
- 2005년의 FDI 유입실적은 EU의 경기부진으로 2004년 실적치에 못 미칠 전망(30억 유로 근접, 25억 유로 내외)
 - o 금년 하반기, 국영석유회사(MOL, 정부지분 11.8%)의 독일 E.ON Ruhrgas 앞 천연가스 영업자산 매각으로 7.75억 유로 기대

□ 외채상황

- 2005년 3월 말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의 수출신용기관(ECA) 인수승인 잔액은 단기 7.1억 달러, 중장기 5.8억 달러로 총 12.9억 달러에 달함. 이중 연체금액은 1.7억 달러 전체의 13.5%이고 이탈리아 SACE에 대한 연체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리스케줄링 실적은 없음.
- 경상수지 적자 보전을 위한 정부의 해외차입 증대로 2004년 말 현재 총외채잔액은 596억 달러로 추정됨. 총외채잔액/GDP 비율은 60%에 근접하고 경제력에 비해 비교적 과중한 채무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나, GDP의 지속적인 증대,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외화차입 조건과 자금조달 능력 등을 감안하면 외채상환에는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임.
- 2004년 말 외채원리금 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은 16.3%로 15%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당해연도의 수출실적이 급증하였지만 외채원리금 상환실적이 지속적으로 이뤄진 데 따른 것임.

II. 정치·사회 동향

□ 정치상황

- 1989년 체제전환 이후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있으며, 중동부 유럽지역에서 가장 안정된 정치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주요 선거일정: 대통령(2005.6: 5년 임기, 의회 선출), 의회(2006.5)
- 대통령: Laszlo Solyom(2005.6), 총리: Ferenc Gyurcsany(2004.8)
- 2002년 4월에 실시된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청년민주연합(Fidesz)이 연임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헝가리사회당(MSZP)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였음.
- 2002년 5월, 자유민주동맹(Alliance of Free Democrats: SZDSZ)과 연정을 구성한 헝가리사회당(Hungarian Socialist Party: MSZP, 중도좌익) 정부는 386석 중 51%인 198석을 확보하는 데 그쳐 정국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 2004년 8월에는 당시 총리였던 Peter Medgyessy가 경질되고 후임으로 Ferenc Gyurcsany(MSZP 출신)가 임명되어 동년 9월부터 취임함. 2005년 4월 18일, Ferenc Gyurcsany 총리는 전임 재무부장관이던 Tibor Draskovics(무소속 출신, 당시 재무부장관이던 Peter Medgyessy 측근으로 2004년 8월 Medgyessy의 사임 이후 입각)를 재정적자 관리 실패를 명분으로 전격 교체하고 후임에 Janos Veres(MSZP 출신)를 기용(2005년 4월 26일 취임)함. 또한 농업·지역개발부 장관으로 Jozsef Graf(MSZP 출신)을 기용함.
- 2005년 6월 7일 대통령(5년 임기) 선출을 위한 의회선거에서 여권 연합정당(MSZP, SZDSZ)이 단일 후보합의에 실패(SZDSZ의 Szili 후보

반대)하면서 보수성향의 야당연합(Fidesz, MDF)에 기대치 않은 승리를 가져다 주었음.

- o 이번 야권의 승리는 기존 여당에 대한 반감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되며 결코 Fidesz, MDF의 연합세력에 대한 우호적인 반응이 아님.
 - o 신임 대통령인 Laszlo Solyom (전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MDF 출신으로 SZDSZ를 융화할 수 있는 중도성향의 적극적인 인물, 금년 8월 5일 취임예정)은 여권(MSZP, SZDSZ)의 Katalin Szili 후보를 185대 182표(제3차 투표)로 가까스로 누르고 승리함.
 - o 여야간의 긴장이 증대하고 있고 연합 정당(Fidesz, MDF)간 비효율적인 의사결정 초래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으며, 이런 추세대로라면 내년 총선(5월 의회, 10월 지방자치단체) 이전에 정책적 변화(경제개혁 부진 가능성)를 기대하기 곤란함.
- 의회(내각책임제)의 다수다을 차지하고 있는 여권 연합정당의 주도세력인 MSZP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2005년 들어서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2005년 초에 실시된 주요 여론조사기관에 의하면, 중도우익의 보수적 성향인 청년민주연합(Fidesz)은 47-55%의 지지율을 보여 MSZP의 34-44%보다 우위를 기록하여 보다 안정적인 지지기반을 확보함.

□ 사회 안정성

- 경제성장에 따른 빈부격차 확대로 계층간의 갈등요인은 적으나, 주변국들에 비해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는 등 사회불안으로 이어지는 요인은 적은 편임.
- 2005년 3월 농업보조금 지급 지연 및 낮은 지급수준으로 농민들의 부다페스트 주요 도로 봉쇄 등 가두 시위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정부의 2005년 말 이전 375백만 유로(5억 달러)의 80%에 해당되는 동 보조금 지급합의로 일단락되었음.

□ 대외관계

- 유럽 대서양 통합기구 가입, 인접국들과의 우호친선 관계 유지와 헝가리계 소수민족 권익보호가 헝가리의 전통적인 대외정책의 3대 기조임.
- 기존 EU 회원국과는 개별적인 관계를 모색하고 있으며, 금년 1/4분기에는 프랑스와의 양자간 경제관계 강화를 위한 합의문서를 별도로 체결하였음. 특히, 중국의 대 EU 판매거점으로 중국과는 무역과 투자 협력적 관계를 추구하고 있음.
- 헝가리 의회는 2004년 12월 20일, EU 헌법 비준안을 의결한 바 있으며, 헝가리 정부는 크로아티아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추진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주요 국제기구 가입·활동 현황
 - 1955: UN 가입
 - 1973: WTO 설립 참여
 - 1982: IMF, World Bank 가입
 - 1988: EC와 무역·상호협력 협정 체결
 - 1991: EBRD 설립 참여
 - 1996: OECD 가입
 - 1997: IEA 가입
 - 1999: NATO 가입
 - 2004: EU 가입

III. 국제사회의 평가

□ 주요 신용도 평가기관별 등급 및 순위

- S&P: BBB+(2000.2) → A-(2000.12) 유지
- Moody's: A3(2000.11) → A1(2002.11) 유지
- OECD: 2등급(2004.1) → 2등급(2005.1) 유지
- I.C.R.G: 43/140(2004.5) → 52/140(2005.5) 하락
- Euromoney: 36/185(2004.3) → 38/185(2005.3) 하락
- I. I: 37/172(2004.3) → 41/173(2005.3) 하락

-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는 대체적 안정적이지만, 전망은 부정적인 견해임.

o S&P는 6월 초 국내통화표시 Sovereign rating을 장기 A-1, 단기 A-2로 각각 한 단계 하락하였는데, 이는 주로 재정상황에 대한 부정적 평가 및 전망에 따른 것임. 금년에도 정부의 재정적자 목표치를 초과하는 재정적자 실현 가능성이 우려됨. 특히 S&P는 추가적인 재정수지(fiscal position) 악화가 발생할 경우 또 다른 부정적인 평가 가능성도 예고함.

□ 주요 수출신용기관(ECA)의 인수태도

- US Ex-Im: Full Cover Available, No Discretionary Limits
- Germany Hermes: Full ST Cover Available,
- ECGD: Full Cover Available,

IV. 우리나라와의 관계

□ 외교관계 수립

- 1989. 2. 1 (북한과는 1948. 11. 11 수교)

□ 주요 협정 체결현황

- 1989: 투자보장협정, 무역 및 경제협력 협정, 과학기술협정
- 1990: 이중과세방지협정, 항공협정, 상사중재협정
- 1991: 사증면제협정

□ 교역현황

단위: 천 달러

	2002	2003	2004	주요 품목
수 출	363,524	661,345	807,415	전자제품, 수송기계, 석유화학제품
수 입	105,313	86,736	123,261	축산물, 전자제품, 수송기계

□ 투자실적

- 2005년 4월 말 현재(순투자 기준): 24건, 122,001천 달러
- 주요 투자업종: 가전·전기제품, 자동차(부품)
- 주요 투자업체: 대우, 삼성전기, 삼성전자, 한화